



코스피 2274.49 (-35.08)	코스닥 789.00 (-5.99)
금리 (국고채 3년) 2.07 (+0.05)	환율 (USD-달러) 1129.90 (+10.70)(4일)



[산업]
초광각·망원 등
5개 카메라 탑재
'LG V40 씽큐' 공개
06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 SK하이닉스에 준공한 'M15' 반도체 공장을 찾아 최태원 SK 회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SK하이닉스, 청주에 낸드 전용공장 M15준공

20조 투자, 22만명 고용 반도체 상생 날개 '활짝'

축구장 5배규모 '클린룸'서
낸드플래시 중점적 생산

文, 끊임없는 혁신에 격려
"정부도 지속지원 나설 것"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반도체
를 향한 끊임없는 도전이 계속되
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공장 준
공식에 참석, 산업의 새 역사를 써
달라고 복돋았다.

SK하이닉스는 낸드플래시를
양산하는 새 반도체 공장 M15를
완공하고 4일 충북 청주에서 준공
식을 개최했다.

SK하이닉스는 이 공장에 향후
20조원 가량을 쏟아부어 반도체
생산을 위한 메카로 탈바꿈시킬
예정이다. <관련기사 3·5면>

이날 모습을 드러낸 SK하이닉
스 M15 공장은 축구장 8개 크기
인 6만㎡ 규모에 달한다. 1만8000
평에 길이 339m·폭 172m·높이
71m 상당이며, 복층으로 구성된
클린룸에서 낸드플래시를 중점적
으로 생산할 예정이다. 클린룸 크
기만 축구장 5배 규모다.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IMF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에 탄생
한 SK하이닉스는 어려움을 기회
로 반전시킨 불굴의 기업으로, D
램 생산 세계 2위, 낸드플래시 생
산 세계 5위의 세계 3대 반도체 기
업으로 우뚝 섰다"며 "1000만권의
책을 담아낼 수 있는 낸드플래시
는 빅데이터의 핵심 두뇌로, 청주
공장 준공으로 낸드플래시 경쟁
력에서도 앞서 나갈 수 있게 됐다"
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감한 투자와 끊임
없는 기술혁신으로 최고의 반도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 SK하이닉스에 준공한 'M15' 반도체 공장을 대형 유리문을 통해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체 회사를 일구어 낸 SK 임직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고 덧붙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은 한국경제의 엔진으로, 올해 상
반기에만 612억 불을 수출해 역대
초고 수준 실적을 달성했다"며
"그러나 중국·미국 등 경쟁국들의
추격이 만만치 않아 세계 최고 반
도체 강국을 유지하려면 힘과 지
혜를 모아 혁신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반도체는 인
공지능·사물인터넷·빅데이터·자
율주행차 같은 미래 신산업과 신
제품의 핵심부품으로, 선제 투
자·기술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
다"며 "SK하이닉스의 지속적인
투자계획을 응원하며 정부도 기
업 투자가 적기에 이뤄지도록 지
원하고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
발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하겠다"
고 밝혔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라
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지역의 역
량과 SK하이닉스의 기술이 만나
대한민국 산업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기 기대한다"고 전했다.

청주공장은 올해 말까지 1000
명을 비롯해 2020년까지 2100명

의 직원을 직접 고용할 것으로 알
려졌다. 또 협력업체 신규고용 인
원도 3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
상된다.

최태원 회장은 "한때 해외 매각
대상으로 거론되던 적자 기업이
최첨단 생산시설을 갖춘 세계 반
도체 리더로 자리매김하기까지
국가와 지역사회에 큰 빛을 쬐왔
다고 생각한다"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혁신으로 4차 산업혁
명의 핵심인 한국 반도체 경쟁력
을 더욱 굳건히 유지해 나가겠다"
고 화답했다.

최 회장은 추석 직전 열린 평양
정상회담 당시 문 대통령의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북한을 함께 다
녀왔다. 문 대통령이 이날 공장 준
공을 축하하기 위해 방문하면서
최 회장과는 약 보름만에 다시 만
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취임
한 후 대기업 생산공장을 찾아 대
기업 총수를 만난 것은 중국 충칭
현대자동차 공장(지난해 12월),
충북 진천 한화큐셀 공장(올해 2
월), 인도 노이타 삼성전자 공장
(올해 7월)에 이어 네번째다.

/김승호·안병도 기자
bada@metroseoul.co.kr

노트북·폰 맡기고 '급전' 전당포에 목 맨 청년들

어스름한 저녁. 습한 공기가
엄습하는 지하실을 내려가면 보
이는 쇠창살. 푹푹하고 두드리
면 드르륵하며 열리는 창문너머
로 매섭게 훑어보는 눈빛. 영화
'아저씨' 속 전당포의 모습이다.
모두 가보진 않았지만 누구나 알
수 있는 전당포의 분위기. 그런
전당포가 최근 변하고 있다.

◆전당포의 변신

지난 3일 저녁. 예약을 하고
찾은 서울 마포구의 한 전당포는
하얀 벽지에 LED조명까지 더
해 눈이 부셨다. 한쪽 벽면에는
유리선반이 설치되어 있고
선반마다 명품백, 지갑, 시계 등
이 전시되어 있었다. 패미집 클
래식 음악까지 흐르자 백화점에
온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요즘 대학생들이 노트북이나
카메라 많이 가지고 오시죠."

2015년식 노트북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물음에 직원이 답했
다. 대출은 얼마나 되냐고 묻자
중고시세를 검색하던 직원은
"대출은 중고시세에서 40~80%
를 해준다"며 "현재 노트북 중고
가격이 30만원이어서 완전매매
는 25만원, 불완전 매매(상환이
미뤄진 경우 경매물품으로 파는
것) 22만원, 담보로 하고 빌리기
만 하는 경우는 15만원을 대출
해 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한참 노트북의 성능을
확인한 직원은 계약서를 가져



서울 용산구에 있는 전당포 간판. /사유리 기자

소액대출 위해 전당포 이용
인증 등 까다로운 절차없이
스마트폰·컴퓨터·카메라 등
저당 물품만 있으면 대출

왔다. 대출금리는 법정 최고 금
리인 연 24%. 10만원을 대출했
을 경우 월 2%, 2000원의 이자
가 붙는 셈이다. 계약서 작성이
끝나자 직원은 카메라로 노트
북을 찍은 후 계약서 1부를 복
사해 주면서 "작성이 끝났으니
20분쯤 뒤에 계약서에 적혀있
는 계좌번호로 돈을 입금해 주
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한달 뒤 돈을 갚
을 때는 하루 전날 전화해 이자
와 대출금액을 확인하고 계좌
로 이체해주면 된다"며 "상환
일을 미룰 경우 그 다음달부터
1부(원금의 10%)와 이자를 함
께 내야 한다"고 했다.

◆청년층 겨냥한 전당포 인기
최근 취업 및 아르바이트 자

리가 부족해지면서 정보기술(I
T) 기기를 맡기고 소액을 대출
할 수 있는 전당포를 찾는 청년
층이 늘고 있다. 주로 스마트폰
과 노트북 컴퓨터, 카메라 등을
맡기고 10만~50만원씩 소액대
출을 받는 것.

전당포 관계자는 "옛 전당포
는 사라지는 추세지만 IT기기
를 전문적으로 받아 대출해 주
는 IT전당포는 늘어나고 있다"
며 "최근에는 PC로도 감정이
가능해지면서 20~40대 손님이
증가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처럼 전당포에 청년층의
발길이 잦은 이유는 까다로운
절차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기록조차 남지 않는다는 점이
손꼽힌다. 직장이 없거나 소득
이 불분명할 경우 까다로운 절
차를 밟아야 하는 금융기관과
달리 저당 물품만 있다면 빠르
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면에 계속>
/사유리 기자 yul115@

"금융불균형 누증, 점진적 해소해야"

이주열 한은 총재

금리 인상 필요성 시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
불균형 누증을 강조하며 연내 금
리 인상 필요성을 내비쳤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4일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열린 경제동
향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소득증
가율을 상회하는 가계부채 증가
세가 지속되면서 금융불균형이
누증되고 있다"며 "우리 경제가
지난 10년간 어떠한 변화가 있었
고 과제는 무엇인지 되돌아볼 필
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불균형 누증은 저금리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시장
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 등을 뜻
한다. 저금리 부작용을 언급했다
는 점에서 이 총재가 금리 인상 필
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총재는 "올해 글로벌 금융위
기가 발생한 지 만 10년째 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라며 "세계 경제는 경기침체에서 벗어났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크게 개선됐으나 새로운 과제들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부채, 자산 및 소득 불평등 심화, 반세계화 정서와 포퓰리즘 확산 등을 위협 요인으로 꼽았다. 특히 반세계화 정서에서 파생된 글로벌 통상갈등 확대, 위기 대응 수단이었다던 주요국

통화정책의 정상화는 지금 세계 경제의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 총재는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을 중심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기업투자는 미흡한 상황"이라며 "지난해의 높은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에도 기인하지만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미래를 위한 투자에 소홀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또 "합리적인 규제 완화 등 투자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투자심리를 제고함으로써 지속 성장의 기반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긴요한 과제"라며 "금융불균형을 점진적으로 해소하는 등 거시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창출능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을 지속해 나가는 등 향후 10년을 바라보는 정책적 노력이 중요한 때"라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hj9@